

선생님을 위한,

서양사

- Part 01 고대 지중해 세계의 역사
- Part 02 중세 유럽 세계의 역사
- Part 03 근대 서양 세계의 역사
- Part 04 현대 서양 세계의 역사
- Part 05 이슬람 세계의 역사



— 김태규 편저

박물각 원서
www.pmgoo.kr

2025
최신 개정판

중등교원임용
전공역사 대비



머리말

최근까지 역사 연구의 현장에서 유럽중심주의는 세계사 인식의 주요 담론으로 기능하고 작용해 왔다. 서구에서 유럽중심주의는 그 기원을 르네상스에 두고 있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 확장된 근대 유럽 사회의 고유한 현상이다. 그래서 유럽중심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세계의 문화와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주요 인자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대성을 향한 모범적 거울로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본격화된 지구화와 정보화로의 이행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우리의 일상과 관련한 모든 부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와 역사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크나큰 변화를 동반하여 세계사와 세계사 연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각종 서양사 개론서나 단행본과 같은 연구서적들이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들은 주로 거대담론의 비판이나 이를 증명하기 위한 미시적 그물망, 지역경제 간 상호교류와 그 영향으로 인한 지구적 차원의 상호의존체계의 형성 등을 다름으로써 상대적으로 연대기적 흐름이나 맥락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탈 유럽중심주의적 입장에서 기획된 세계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관점과 시각으로 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서유럽 및 그들과 연계된 세계 각 지역의 역사에 대한 흐름과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서는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것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될 현장의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수없이 많은 세계사의 사실들과 사건들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연결할 것인가, 또는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직종과 상관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선생님을 위한 서양사』는 서양 역사의 흐름과 이와 관련된 주요 지역세계(서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다루었다. 본 서양사 책에서는 총 다섯 파트로 내용을 구성하여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는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서양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배열했고, 파트 5에서는 이슬람의 역사를 간략히 추가하였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사실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2025학년도를 대비하여 새롭게 개정된 이번 서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파트별 임용고시 기출문항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와 도표를 수정 및 보완하였고 이를 통해 좀 더 쉽게 기출된 문항들의 사례와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각 파트와 챕터별로 해당 내용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단원의 구조도를 추가하였다.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고 맥락을 통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리라 본다.

셋째, 새롭게 2024학년도 기출 경향 분석 내용을 추가하여 기출된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앞으로 출제 가능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넷째, 20여 년간의 기출 문항이 출제된 부분을 본문에 표시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며, 학습량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해당 시기별 관련 사료와 지도·이미지 등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적절히 재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의 재배치를 통해 내용의 계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여섯째, 해당 내용이 많아 문장으로 표현하기 불편한 부분은 표로 정리해 보다 깔끔하게 처리했다.

일곱째, 연도 표기나 인명 표기와 관련된 실수들을 바로 잡고 간결한 내용으로 압축하고자 했다.

여덟째, 서브노트에 유대인 박해의 역사를 추가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고자 했다.

수험서의 성격상 이 책은 많은 대학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로부터 대부분의 내용을 차용했다. 서적에 담긴 모든 내용은 서양사에 관한 주요 개론서와 몇몇 단행본 그리고 개정된 교과서의 내용을 간추리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많은 분들의 학문적 업적에 누를 끼쳤으며, 그분들의 명성에도 흠결을 가했으리라 본다. 이러한 죄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책 말미에 참고문헌을 명시했다. 수험생 여러분의 현안으로 원문의 탁월함과 유려함을 느껴보길 바란다. 부족한 서적이 나올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문각 출판 편집팀의 민지완 님과 교장에 도움을 준 지선영 선생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PART 01 고대 지중해 세계의 역사

Chapter 01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

01 오리엔트 세계의 역사적 전개	… 13
02 이집트 문명	… 15
03 메소포타미아 문명	… 22
04 동부 지중해 연안의 민족들	… 28
05 고대 서아시아 세계	… 30

Chapter 02 지중해 세계와 그리스

01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 38
02 폴리스의 성립과 발전	… 42

Chapter 03 페르시아 전쟁과 아테네의 민주정치

01 민주정치로의 발전	… 56
02 페르시아 전쟁	… 58
03 아테네 제국과 아테네의 민주정치	… 60
04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그리스의 쇠퇴	… 64
05 그리스의 사회 · 경제 · 문화	… 69

Chapter 04 헬레니즘 세계: 영토 왕국들의 성쇠

01 헬레니즘 세계의 정치	… 75
02 헬레니즘 시대의 사회 · 경제 · 문화	… 79

Chapter 05 로마 제국: 공화정기

01 왕정기	… 82
02 공화정 초기	… 83
03 공화정 후기	… 93

Chapter 06 로마 제국: 제정기

01 제정 초기	… 102
02 제정 후기: 제국 체제의 해체	… 108
03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트교	… 114

PART 02 중세 유럽 세계의 역사

Chapter 01 민족 이동과 프랑크 왕국

01 게르만족의 이동	… 132
02 프랑크 왕국의 성쇠	… 135
03 2차 이민족의 이동	… 145
04 비잔틴 제국의 성쇠	… 147

Chapter 02 중세 봉건 왕국의 성립

01 봉건제도와 장원제도	… 155
02 영국	… 160
03 프랑스	… 163
04 독일과 북유럽 3국	… 164
05 동유럽과 슬라브족	… 166



Chapter 03 중세 교회의 발전

- | | |
|----------------------|------|
| 01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개혁 운동 | …170 |
| 02 교황권의 확립 | …173 |
| 03 십자군 전쟁 | …178 |
| 04 교황권의 절정과 쇠퇴 | …184 |

Chapter 04 봉건 사회의 발전

- | | |
|-------------------|------|
| 01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달 | …195 |
| 02 중세 봉건 왕정의 발전 | …203 |
| 03 중세 서양의 문화 | …214 |

Chapter 05 봉건 사회의 붕괴

- | | |
|-------------------------|------|
| 01 정원제의 붕괴와 농촌 및 도시의 변화 | …231 |
| 02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로의 발전 | …240 |

PART 03 근대 서양 세계의 역사

Chapter 01 르네상스, 서유럽의 지리적 팽창, 그리고 종교개혁

- | | |
|----------------|------|
| 01 르네상스 | …252 |
| 02 서유럽의 지리적 팽창 | …262 |
| 03 종교개혁 | …274 |

Chapter 02 근대 서양 사회의 발전

- | | |
|------------------------|------|
| 01 절대왕정의 구조 | …288 |
| 02 재정·군사 국가로서의 절대주의 국가 | …291 |
| 03 절대왕정의 성립과 발전 | …294 |
| 04 왕조 전쟁 | …311 |
| 05 절대왕정의 사회·경제 | …314 |
| 06 절대왕정의 정치사상과 경제사상 | …317 |
| 07 절대왕정의 문화와 사유 | …325 |
| 08 18세기 계몽주의의 발전 | …327 |

Chapter 03 시민혁명

- | | |
|-------------|------|
| 01 영국 혁명 | …334 |
| 02 미국 독립 혁명 | …344 |
| 03 프랑스 혁명 | …350 |

Chapter 04 자유주의와 산업화 그리고 내셔널리즘

- | | |
|-----------------------|------|
| 01 자유주의의 발전 | …382 |
| 02 산업혁명 또는 산업화 | …397 |
| 03 내셔널리즘과 각국의 발전 | …410 |
| 04 19세기 유럽의 이데올로기와 문화 | …434 |



CONTENTS

차례

PART 04 현대 서양 세계의 역사

Chapter 01 제국주의와 제1차 세계대전

- | | |
|----------------|------|
| 01 제국주의와 세계 분할 | …446 |
| 02 동맹과 협상의 성립 | …455 |
| 03 제1차 세계대전 | …461 |
| 04 러시아 혁명 | …466 |

Chapter 02 베르사유 체제와 제2차 세계대전

- | | |
|---------------------------------|------|
| 01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처리 | …479 |
| 0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과 각국의 정세 | …484 |
| 03 전체주의의 대두 | …491 |
| 04 전체주의 국가의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 | …497 |

Chapter 03 현대 세계의 변화

- | | |
|---------------------|------|
| 01 전후의 냉전시대 | …508 |
| 02 전후 유럽의 부흥과 발전 | …525 |
| 03 68운동과 새로운 사회 운동 | …533 |
| 04 경제위기와 그 대응 | …541 |
| 05 공산권의 대변혁과 최근의 정세 | …545 |

PART 05 이슬람 세계의 역사

Chapter 01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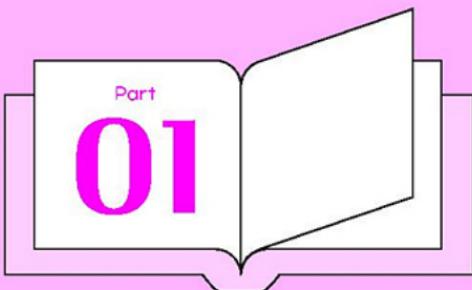
- | | |
|---------------|------|
| 01 이슬람 세계의 성립 | …555 |
| 02 이슬람 세계의 발전 | …559 |

Chapter 02 오스만 제국의 형성과 발전

- | | |
|-------------------|------|
| 01 터르크의 성장과 발전 | …564 |
| 02 오스만 제국의 성쇠 | …565 |
| 03 제국주의와 민족운동의 전개 | …571 |

서양사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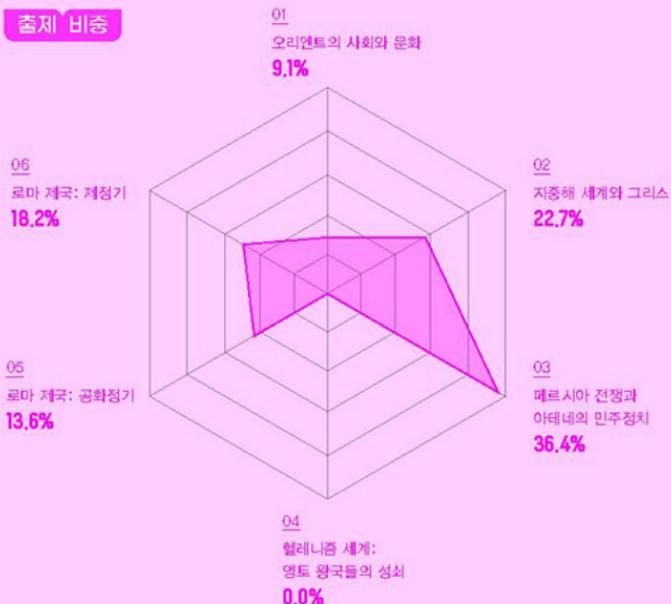




고대 지중해 세계의 역사

- Chapter 01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
- Chapter 02 지중해 세계와 그리스
- Chapter 03 페르시아 전쟁과 아테네의 민주정치
- Chapter 04 헬레니즘 세계: 영토 왕국들의 성쇠
- Chapter 05 로마 제국: 공화정기
- Chapter 06 로마 제국: 제정기

출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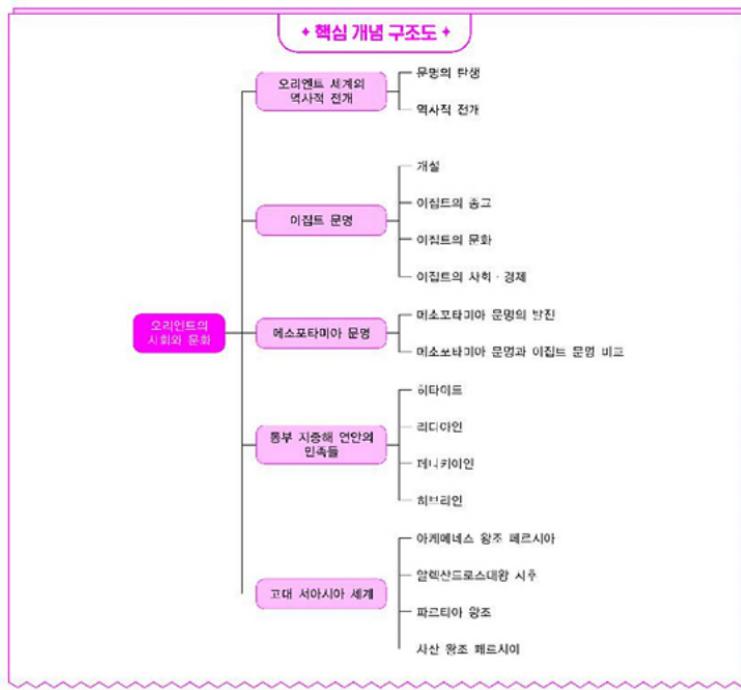


출제 주제

Ch 연도	Ch 01	Ch 02	Ch 03	Ch 04	Ch 05	Ch 06
2024		팔링크스 전술과 3단 노선의 도입	페리클레스 시기 아테네 민주정의 한계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의 성립
2023			펠로몬네소스 전쟁의 결과			
2022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범안	
2021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치체제 논쟁					
2020		크노소스 궁터와 신성문자B				• 트리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 콘스탄티누스의 경제정책
2019	아케나顿의 종교혁명		카이로네이아 전투와 코린트(헬레네스)동맹			
2018		스마르타의 사회구조와 레온트라 전투의 결과				아우구스투스와 원수정의 구조
2017					로마 사회의 구조와 공화정의 몰락 과정	
2016		• 솔론의 개혁 • 메이시스트리토스의 정치	•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 페리클레스의 개혁 • 테레스 계층의 해택			
2015			•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 • 두카디데스『역사』 서술 특징			
2014					전투리아회의 구성 원리	

핵심개념 구조도





기출 경험 분석

- ❶ 최근에는 2007학년도 19번 문항과 2019학년도 A형 4번 문항으로 출제된 바 있으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 각각 출제되었다. 빈출도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고대법의 원형과 길가메시 서사시 등 관련 사료는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외에 출제된 내용은 이집트 문명의 신왕국 시대, 그 가운데서도 아마르나 시대(BCE 1355~1330년경)가 출제된 바 있다.
- ❷ 주요 문명의 특징과 BCE 2000년기와 1000년기의 제국의 성쇠 과정이 출제될 만하다. 아울러 국제적 조약과 각국의 정치적 인물들도 정확히 외워 두면 좋다. 단 임용 시험인 민글 수능 수준의 문항 이해나 내용 정리는 자랑하는 것이 좋다.

01 오리엔트 세계의 역사적 전개

01

1 문명의 탄생

(1) 문명 단계로의 발전

- ① 문명은 인류 문화사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정치경제적 구조를 지닌 사회나 그러한 사회·발전 단계를 의미
- ② 문명은 인류 문화사에서 보통 정착 생활과 농경의 바탕 위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 위계와 정치·군사·종교 조직을 갖춘 사회 혹은 그러한 문화적 단계를 가리키며, 그 시작은 대체로 도시와 국가의 등장과 맞물림
- ③ 문명 단계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대체로 청동기(青銅器)의 사용, 문자의 발명, 도시의 출현, 정치조직의 발생, 사회계급의 형성, 조직적인 종교의 발달과 신전 및 신관(神官)의 출현, 선박과 차륜(車輪)의 발명 등이 나타남
- ④ BCE 5000~3000년 경 오리엔트 지방을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쳐 급속한 문화발전

(2) 문명의 탄생 요인

- ① 자연지리적 조건
 - Ⓐ 풍부한 물과 기름진 땅, 다양한 식용작물
 - Ⓑ 필요한 자원도 주변에 풍부하였고, 교통도 편리
- ② 사회적 조건
 - Ⓐ 큰 강 유역에 수로나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을 쌓는데, 촌락단위가 아닌 큰 규모의 사회 전체적 협동이 필요
 - Ⓑ 일꾼들의 급식을 위한 다양한 의 양여생산이 필요
 - Ⓒ 각종의 개량과 발명이 필요
 - Ⓓ 치수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는 갑시와 보수작업이 필요, 땅을 수호할 수 있는 군대도 필요
 - Ⓔ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촌락에서 도시로, 사회에서 국가로, 미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발전이 필요

일 미두기 고든 차일드(V. Gordon Childe)의 문명론

문명이 성립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1920년대부터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계되어 특히 중요한 인물은 영국의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V. Gordon Childe)이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유역에서 알려진 고대 문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명의 기본 요소를 정의하고 문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는지 설명하였다. 즉, 모건 (Lewis Morgan)이 문화적 발전 단계로서의 문명의 개념을 확립시켰다면, 차일드는 문명을 규정하는 구체적 증거의 기준과 문명 구성요소의 등장을 설명함으로써 오늘날 등용되는 문명에 대한 자식체계의 기초를 만들었다.

차일드는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을 따라, 평범한 수준의 문화를 지닌 사회가 문명이라는 이름을 물릴 수 있는 복잡한 체계로 변화한 것은 경제적 부문에서의 변화가 사회 모든 부문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그는 기술이 발달하고 전문적 장인 집단이 등장함에 따라 아금술, 문자, 도량형, 대형 공공건축, 징거리 무역, 운송수단, 전문적 장인, 관개시설, 농경기술의 발달 및 양여생산과 같은 중요한 문화 요소가 등장하고 보급되었으며,

그 결과 문명이 탄생했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고대 문명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농경의 발달에 따른 영여의 축적이라는 바탕 위에서 서로 맞물리며 등장하고 발달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 계층화와 권력의 집중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고대 문명이 이득되는 이러한 과정을 도시혁명(Urban Revolution)이라고 불렀으며, 도시 혁명을 가능하게 해준 궁극적 요인인 농업과 정착생활의 시작을 가리켜 신석기 혁명(Neolithic Revolution)이라 하였다. 즉, 차일드는 빙하기의 종식에 따라 환경 조건이 호전되며 농경이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잉여가 발생하며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분화와 다양화가 가능해지고, 그런 바탕 위에서 문명이 탄생했다는 설명을 제시한 것이다. 그의 설명은 1950년대까지 문명의 기원에 대한 거의 유일한 체계적 설명이었으며, 문명의 기원과 관련해 지금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전적 설명이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술의 발달과 전문적 장인 집단의 확립이 반드시 문명 단계의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므로 문명의 징표일 수는 있어도 문명을 성립시킨 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환경 변화와 농경 사이의 필연적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혁명은 문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문명의 특징을 설명하는 우회적 개념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역사적 전개

(1) 형성기(BCE 3000년기)

- ① 나일강 하구(河口)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동부 지중해 연안을 포함한 이른바 ‘기름진 초승달(fertile crescent)’ 지역을 중심으로 오리엔트 세계의 정치와 사회구조, 문화의 기본들이 형성된 시기
- ② 각 문화권별로 비교적 독자적인 발전이 진행된 시기

(2) 발전기(BCE 2000년기)

- ① 전반기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빌로니아 왕국이 전성기
- ② 후반기에는 이집트에서 신왕국 시대를 맞이하여 전성기
- ③ 소아시아에서는 헤타이트, 두 강 상류지역에서는 미坦니, 에게해에는 크레타문명이 발전
- ④ 이 시기에는 외교문서의 교환 등 직접적인 접촉이 활발해져, 오리엔트 세계는 역사적인 상호연관성을 가진 하나의 국제사회를 형성
 - ⑤ BCE 12세기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
 - ⑥ 오리엔트 강대국이 모두 쇠퇴. 크레타문명 계승한 미케네 문명 파괴, 해상민족 출현
 - ⑦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가 동부지중해 연안에서 활발한 해상 활동 전개

(3) 통일기(BCE 1000년기)

- ① 철기 시대로의 발전과 더불어 에게 문명을 제외한 오리엔트 세계의 모든 지역이 하나의 역사적 세계로 통합
- ② 아시리아 → 칼데아(신바빌로니아 왕국)를 비롯한 4국으로 분립
- ③ BCE 6세기에 페르시아 통일 → BCE 4세기 말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



02 이집트 문명

1 개설

(1) 역사 개관

- ① 나인강 일대가 신석기에서 문명단계로 발전한 것은 BCE 5000~BCE 4000
- ② 고대 이집트 왕조는 고왕국(BCE 2686~BCE 2181), 중왕국(BCE 2040~BCE 1782 또는 BCE 1567), 신왕국(BCE 1550~BCE 1070 또는 BCE 1567~BCE 332)으로 구분
- ③ 고왕국은 나일강 하류의 멤피스에 수도와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시작
 - ▣ 대표적인 것: 쿠투왕의 피라미드
- ④ 중왕국 때는 수도가 테베로 옮겨졌지만, 혁소스인의 침략을 받으며 쇠퇴
- ⑤ 이후 신왕국이 혁소스인을 물어낸 후, 이집트의 번영을 회복
 - ▣ 이때 집권한 대표적인 파리오: 하트셉수트, 투탕카멘, 립세스 2세 등

(2) 역사 변천

- ① 왕조는 흔히 4개의 주요 시기와 그 사이의 과도기로 묶여 나뉘는데, 대체적인 편년은 일치 하나 구체적인 시기의 경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
- ② 선왕조 시대(BCE 5000년~BCE 4000년)
 - ① 토템씨족들의 촌락이 도시로 성장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40여 개에 달하는 노emes (nomes)의 지역적 단합이 이루어졌음
 - ② 노emes가 합쳐져 상(上)왕국과 하(下)왕국 성립
 - ③ BCE 3000년경 상왕국 메네스왕에 의해 통일왕국 성립
 - ④ 메네스왕 등 초기왕조는 반전설적, 그래서 고왕국 시대부터 이집트 역사가 확실함
- ③ 고왕국(BCE 2686~2181): 제3~6왕조에 해당하며 수도는 멤피스

- ① BCE 2770 조세르의 고왕국 창시
- ⓐ 최초로 피라미드 건설
 - ⓑ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간주
- ㉡ 제정인치 사회, 중앙집권체제 강화, 파라오는 최고 제사장, 신하들은 사제
- ② 평화정책, 불침략 정책
- ⓐ 파라오는 상비군을 거느리지 않았으며, 각 지방의 자체의 민병대를 보유
 - ⓑ 대개 공공사업에 투입, 외침의 위협 → 민병대 소집, 파라오하 통솔
- ③ 이유
- 이집트는 외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고, 토질이 대단히 비옥
 - 이집트가 다른 민족의 침취가 아닌 협동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
- ④ 중·말: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정부 세입의 고갈, 흥작
- ⑤ 제1중간기(BCE 2181~2040) : 제7~10왕조
- ① 귀족들의 지배영역 확대
 - ㉡ 대내적 약탈, 사막 부족들의 침입으로 혼란
- ⑥ 중왕국(BCE 2040~1782) : 제11~12왕조에 해당하며, 수도는 테베
- ① 12왕조(BCE 1900~1786) : 이집트의 황금기 · 고전기
 - ⓐ 관리 · 상인 · 공인 · 농민 등 중간계급과 결탁하여 강력한 지배권 장악
 - ⓑ 피라미드 건축 대신 실용성 있는 용수로나 관개시설 같은 공공사업 시행
 - ⓒ 종교가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종교의 도덕적 행위 강조
 - ㉡ 지방 세력가들의 대활약, 페니키아 · 크레타섬과 교역
- ⑦ 제2중간기(BCE 1782~1550) : 제13~17왕조, 힉소스의 침입(BCE 1750년경)
- ① 기병대 · 전차 보유한 힉소스인들이 이집트의 분열 상황 이용해 침입
 - ㉡ 영향
 - ⓐ 이집트에 새로운 전투 방법(전차기병) 소개
 - ⓑ 공통 대의에 단결하는 계기 마련
- ⑧ 신왕국(BCE 1550~1070) : 제18~20왕조에 해당하며, 수도는 테베 → 아마르나 → 텔비로 이동
- ① 18왕조 창시자 아모세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
 - ⓐ 제국의 시대
 - ⓑ 거대한 군사조직을 파라오가 통솔
 - ㉡ 유프라테스강 ~ 나일강 상류까지 광대한 지역 장악
 - ㉢ BCE 12세기경 정복지의 대부분 상실



고대 이집트 지도

- ⓐ BCE 10세기 말~8세기 말 리비아의 왕조가 파라오 차지(에티오피아 왕조)
- ⓑ BCE 670 아시리아에 정복 → BCE 525 페르시아에 정복 → BCE 30 로마에 정복

2 이집트의 종교

(1) 고대 이집트의 종교 변화

- ① 초기는 다신교
- ② 이후 유일신교의 초기 형태에서 다시 다신교로 전환

(2) 고왕국

- ① 태양신 라(Ra) 숭배
 - ㉠ 국가와 인민들에게 집단적인 불멸성 제공
 - ㉡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의 대리자
- ② 라(Ra) 신
 - ㉠ 수호신, 정직·정의·진리의 신,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신
 - ㉡ 중왕국 시대에 아몬(Amon)으로 지칭
- ③ 오시리스 숭배
 - ㉠ 오시리스 숭배는 자연종교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식물의 성장과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생명력을 의인화한 것
 - ㉡ 오시리스 신화
 - Ⓐ 먼 옛날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실용적인 기술·법률을 가져다준 자비로운 지배자
 - Ⓑ 동생 세트의 모반으로 살해 → 부인 이시스의 노력으로 부활
 - Ⓒ 죽은 자들의 재판관(사자의 심판)
 - Ⓓ 유복자 호루스는 세트를 살해하여 부친의 죽음에 복수
 - ㉢ 오시리스 신화의 의미
 - Ⓐ 오시리스 신의 죽음과 부활은 나일강이 가을에 마르고 봄에 홍수가 오는 것을 상징화한 것이며, 개인적 영생의 약속을 전해주는 것으로 간주됨
 - Ⓑ 호루스의 승리는 악에 대한 선의 궁극적인 승리

• 사료 탐구 오시리스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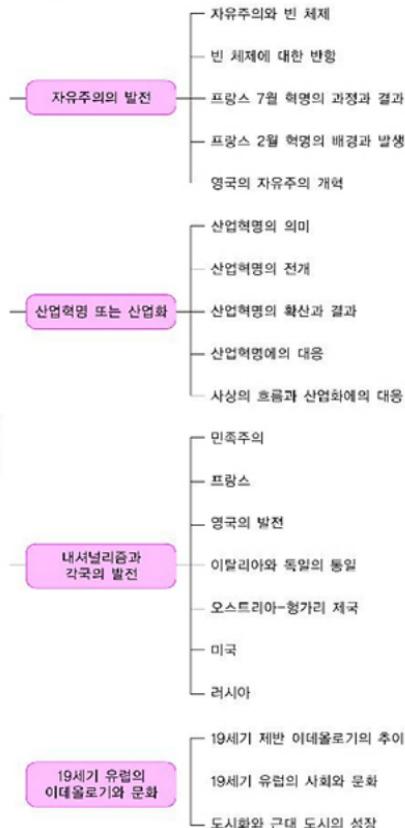
오시리스는 생동이 누이 이시스와 결혼하여 이집트를 홀륭하게 통치하였다. 그의 동생 세트는 오시리스를 질투한 나머지 꾀를 내어 그를 살해한 후 관을 나일강에 흘려보냈다. 남편을 잃은 이시스는 페니키아 까지 찾아가 오시리스의 시신을 찾아 이집트로 돌아왔다. 그러자 세트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길기갈기 찢어 나일강에 다시 뿌렸다. 이시스는 깃은 고생 끝에 오시리스의 시신 대부분을 찾은 후 미라로 만들어 부활시켰다. 한편,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호루스는 세트와 싸워 이긴 후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

04

자유주의와 산업화 그리고 내셔널리즘



+ 핵심 개념 구조도 +



기출 경향 분석

- ❶ 산업혁명은 의외의 주제이다. 예상보다 출제된 횟수가 적고, 반대로 출제될 가능성도 나름 높다. 산업혁명의 배경, 석탄과 철철 기술의 발달 이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는 것도 다소 의아하다. 섬유 공업에서의 혁명, 매클로스의 인구론과 그가 제기한 근대적 경제 성장의 세계, 산업혁명 이후의 영향과 문제점 등을 앞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다. 여러 종류의 서적들의 내용을 잘 비교하여 이해해두면 편하다.

- ❷ 19세기를 가로지르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은 임용 시험에서 변별력과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다. 2009, 2010, 2012, 2015, 2024학년도의 경우는 부흥적, 침략적 민족주의의 특징과 빌헬름의 황제 즉위의 과정, 비스마르크 철철 정책의 구현 과정, 독일 제국의 헌법과 통일방안을 묻는 문항이 사료로 출제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부흥적 또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운동과 독일 통일 방안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출제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2011학년도의 경우는 그로티우스, 로크, 볼테르, 몽테스키우, 에드워드 기번과 같은 근대 철학자들의 인식과 논리를 묻는 문항이, 2013학년도의 경우는 바쿠닌, 크로포트킨 등 무정부주의자들의 활동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했다. 2016, 2021학년도의 경우에는 먼저 선언과 문호 개방 선언의 목적과 남북전쟁의 발발과 훔스테드법을, 2018학년도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크림전쟁, 농노해방령, 사상적 기반, 스톨리핀의 농업 개혁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앞으로도 이탈리아 통일, 독일의 통일 과정, 두 나라의 통일 과정에서 벌어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등이 지도와 함께 출제될 수 있다. 더불어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대외 팽창과 연관한 크림전쟁, 알렉산더 1, 2세 그리고 니콜라이 1, 2세가 처한 대외적 상황과 개혁 조치도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사의 경우 독립 이후의 연방 헌법의 제정 과정, 남북 전쟁의 배경과 경과, 영토의 팽창 등이 중요하다. 물론 모두 공간적 팽창과 연관한 지도학습은 필수적이다. 예나-아우어슈테트(Jena-Auerstedt) 전투(1806. 10.), 틸지트(Tilsit) 조약(1807), 프로이센의 굴욕, 베를린 칙령(대륙 봉쇄령, 1806. 11. 21.), 프로이센의 개혁, 슈타인-하르덴베르크 개혁, 10월 칙령(1807)과 연관한 사실들도 쟁여 두자. 기출된 문항의 지문 내용을 무엇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변형 문항을 만들어보는 것도 효과적이리라 본다.

- ❸ 18~19세기에 이르면 이전 세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이념과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한다. 혁명기를 이끌었던 계몽주의, 산업혁명의 대응 담론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적 급진주의, 초기 및 과학적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와 같은 새로운 사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임용시험에서는 무정부주의가 출제된 바 있으며, 앞으로 시험에서도 고전경제학이나 민주적 급진주의 초기 사회주의의 이상가들의 주장이나 논리 등이 출제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의 사상체계인 인민주의도 한 차례 출제되었으나 반복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꼼꼼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01 자유주의의 발전

1 자유주의와 빈 체제(Wiener System)

(1) 자유주의

- ① 자유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이 정치나 신분에 얹매이지 않고 힘에 의한 억압이나 부당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 사상
- ② 개인주의·평등주의·보편주의·개방주의를 구성 요소로 간직함으로써 다양성·복합성을 넘어서는 '통합된 전망'

(2) 빈 회의(1814~1815)

- ① 원칙: 정통주의(정치체제), 세력 균형(영토)
- ② 주요 대표: 베테르니히(오스트리아), 캐슬레이(영국), 탈레랑(프랑스),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프로이센), 알렉산드르 1세(러시아)

(3) 회의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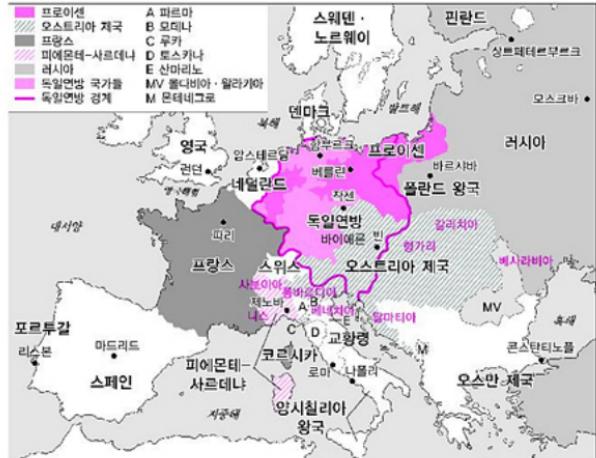
- ① 복고왕정과 영토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구질서의 회복과 유지
- ② 정통주의(복고주의)
 - ① 전쟁 이전의 영토 회복
 - ② 프랑스·에스파냐·나폴리의 부르봉 왕실 복위
 - ③ 포르투갈 옛 왕실 복위
- ③ 세력 균형: 오스트리아·러시아·프로이센·영국이 유럽대륙의 패권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균형 상태 추구
- ④ 보상원칙(compensation): 영토 문제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해결
- ⑤ 프랑스 혁명 이후 싹튼 민족주의·자유주의를 억압하려는 보수적·반동적 성격

+서로 링크 **빈 회의의 결정 사항** 2024-B형 8

1. 오스트리아는 벨기에에 포기하는 대신, 이탈리아에서 콜바르디아를 회복하고 베네치아를 얻는다.
2. 프로이센은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와 작센·라인 지방에 영토를 얻는다.
3. 영국은 전쟁 중에 획득한 식민지인 케이프 식민지와 세일론(스리랑카)의 영유를 확인받았으며, 네덜란드가 벨기에에 합병한다.
4.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 독일에는 독일 연방이 성립한다.
5. 나폴리·프랑스·에스파냐 등에서는 구(舊)왕가가 복위한다.
6. 러시아는 폴란드의 상당 부분을 얻어 폴란드 왕국을 세우고, 러시아 황제가 그 왕위를 겸한다.

내란적 끝기

빈 회의(1814 ~ 1815)는 전례 없이 호화로운 국제회의였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왕제, 프로이센 왕 등 각국 군주와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Metternich, 1773 ~ 1859)를 비롯하여, 영국의 카슬리(Castlereagh, 1769 ~ 1822), 프랑스의 탈레랑(Talleyrand, 1754 ~ 1838) 등 각국의 꽝꽝한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매일 같이 연회와 무도회가 열리는 가운데 협의는 악후에서 진행되었다. 유럽의 질서 회복과 재편성을 위한 빈 회의의 주제는 '신성한 정통성(正統性)'의 원리(the sacred principle of legitimacy)였다. 그것은 역정 견의 상태를 정통적인 것으로 보고, 그 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이 원리에 입각하여 프랑스, 이스파나, 나폴리에는 역정 견의 부르봉 왕室이 복귀하고, 모르투갈에도 옛 왕실이 돌아왔다. 그러나 국경선이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완전하게 역정 견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특히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와 프로이센의 작센에 대한 요구가 괴대하여 회의는 한때 정통상태에 빠졌으나, 이에 대한 태협이 성립되자 기た 영토 문제는 보상원칙(compensation)에 따라 비교적 우호적으로 해결되었다.



❾ 빈 회의 이후의 유럽

(4) 빈 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

- ① 신성 동맹(Holy Alliance, 1815) :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 ① 목적 : 크리스트교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 유지
 - ② 의미 : 알렉산드르 1세의 신비주의의 소산으로 실질적으로는 무의미
- ② 사국 동맹(Quadruple Alliance, 1815) :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 ① 내용 : 빈 회의의 결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

- ㉡ 의미: 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국제기구 구실을 하게 됨
- ㉢ 오국 동맹(Quintuple Alliance, 1818): 프랑스가 조건부로 가입

(5) 보수주의자들의 동향

- ① 신성 동맹의 보수주의자들은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의 흐름을 차단하고 체제의 안정 도모
- ② 1790년대 베르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잘 드러났듯 보수주의자들은 전통과 역사를 이성과 자유보다 우선시하고 과거로부터 정책의 기초를 구하려 함
- ③ 지속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변화 자체를 우상화하는 경향을 험하고 새로운 것을 통해 기분 전환과 사극을 추구하는 대중의 욕구에 대해 반발
- ④ 보날드는 무모하게 현재를 변화시키려는 '혁명의 정신'을 경계하고 자연법 이론의 개인주의나 권리주의에 반대하면서 제도권 종교를 국가와 사회의 초석으로 여김
- ⑤ 보날드는 「권력론」에서 절대주권을 가진 신이 고유의 권위를 지니는 가족·교회·정부에 권한을 균등하게 위임했다고 주장
- ㉡ 그에 따르면, 프랑스의 혁명 정부는 가족과 교회의 전통을 무분별하게 침범하고 모든 권한을 독점

2 빈 체제에 대한 반항: 대서양 양안 세계의 변화

(I)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

- ① 동유럽의 학생 운동
 - ② 독일: 부르센샤프트(Burschenschaft, 학생 조합, 1815) 2024-B형 8

사료 **해개비슈, 「신념고백」(1817)**

독일은 하나이고 하나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이 3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중략) … 우리는 독일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 … (중략) … 독일이 북부 독일과 남부 독일로 분열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다. … (중략) … 우리는 장래에 우리들 중 누군가가 관직에 들어간다면, 누구도 비밀 경찰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관직도 … (중략)… 그리고 출판된 서적의 검열과 관련된 어떤 관직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 해개비슈: 부르센샤프트 운동가

- ㉡ 러시아: 예나 대학생인 칼 루드비히 잔트(Karl Ludwig Sand)의 코체부(Kotzebue) 암살(1819), 데카브리스트의 봉기(1825)
- ㉢ 카를스바트(Karlsbader) 결의(1819) 2022-A형 7
 - ④ 메테르니히 주도하에 학생 조합 해산
 - ⑤ 대학에 감독관 파견, 출판물 검열 등
 - ⑥ 이로 인해 독일의 자유주의 운동은 질식 상태에 노달

- ② 영국: 피털루 학살(Peterloo Massacre)
- Ⓐ 1819년 영국에서 일어난 민중운동을 탄압한 사건
 - Ⓑ 영국 맨체스터의 세인트 피터 광장에 약 6만 명의 민중이 모여 의회개혁·선거권 확대 요구
 - Ⓒ 헨리 헌트의 연설 도중 기병대가 습격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
 - ⓐ 몇 해 전 워털루에서의 영국군 승리에 빗대 민간인에 대한 야만적 공격을 야유한다는 뜻에서 '피털루 학살'이라고 명명
- ③ 남서유럽의 자유주의 혁명 → 트로우파우 회의(1820)로 진압
- Ⓐ 에스파냐: 보통선거, 제한군주제의 민주주의 헌법 채택(1812), 포르투갈도 유사
 - Ⓑ 나폴리: 카르보나리당(Carbonari)이 조직, 이탈리아의 자유와 독립을 목표로 결성한 비밀 결사
 - Ⓒ 슬레지엔의 트로우파우 회의(1820): 에스파냐의 자유주의 봉기와 나폴리의 반란에 개입
 - ⓐ 메테르니히는 4국 동맹을 이용하여 영국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모두 진압
 - Ⓑ 나폴리는 오스트리아에 의해(1821), 에스파냐는 프랑스에 의해 진압(1823)

(2)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

- ① 배경: 계몽사상,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에 자극받아 나폴레옹 시대에 독립운동 전개
- ② 아이티

 - Ⓐ 빈 체제 이전의 최초의 독립국
 - Ⓑ '흑인의 벗 협회' 조직(1788, 파리)
 - Ⓒ 노예제 폐지 주장, 생도맹그 식민지 노예반란(1791)
 - ⓐ 노예제 폐지 선언(1793, 프랑스는 영국과 에스파냐에 식민지를 빼앗길까 우려하여 생도맹그 전역에 선언)
 - Ⓑ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가 노예제도를 끝내고 독립(1804)

- ③ 베네수엘라·콜롬비아·볼리비아·에콰도르: 시몬 볼리바르(S. Bolivar, 1783~1830, 해방자)가 독립 주도

• 사료 광구 볼리비르의 독립

나는 에스파냐 총독들을 뱃속까지 경멸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정취하기만 한다면, 나는 왕이라는 직함보다는 해방자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방자라는 칭호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칭송이기 때문입니다.

— 헨드릭 빌령 만 문, 『시몬 볼리바르』

• 내용적 읽기

남아메리카의 독립운동 지도자 볼리바르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킨 영웅으로,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긴밀한 단결과 협력을 위하여 1826년 파니마 회의를 제창하였다. 비록 회의는 각국 간 의견의 불일치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후 남북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정치·경제·사회·군사 등의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라는 범아메리카주의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2023 고객선호브랜드지수 1위
교육(교육서비스)부문 1위



2022 한국 브랜드 만족지수 1위
교육(교육서비스)부문 1위



2021 조선일보 국가브랜드 대상
에듀테크 부문 수상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교육부문 1위



2020 한국 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수상



2019 한국 우수브랜드
평가대상 수상



2018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
교육서비스 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브랜드스탁 BSTI
브랜드 가치평가 1위

선생님을 위한,

서양사

